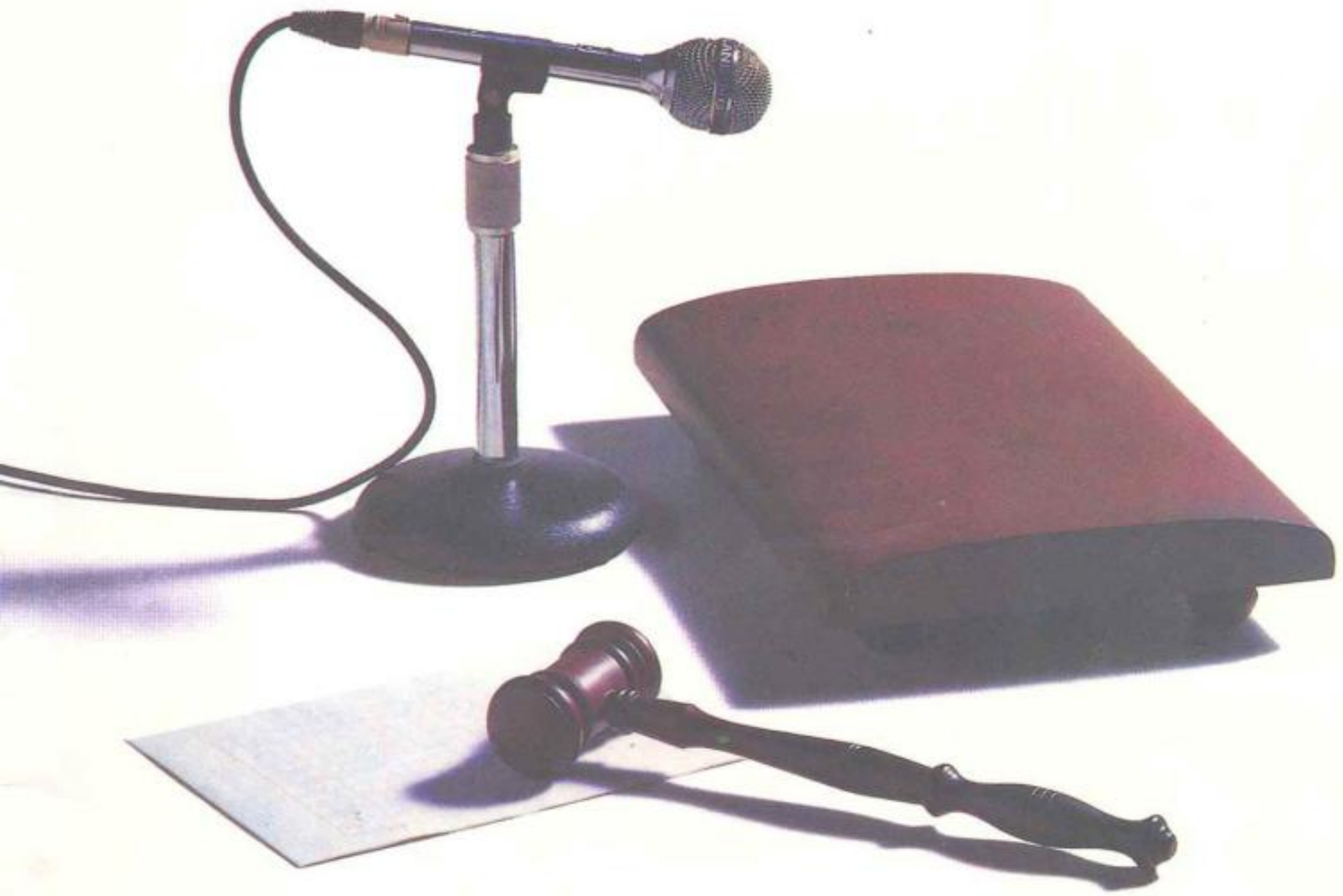
議政消息



1993. 1. 第 2 號

高 興 郡 議 會



▶ 기관과 업소를 방문 선진 질서운동을 계도



▶ '92년말 팔영산 초소 위문



▶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군의원들



▶ 자매결연 군인 경남 사천군의회를 방문 상호 의정운영 상황을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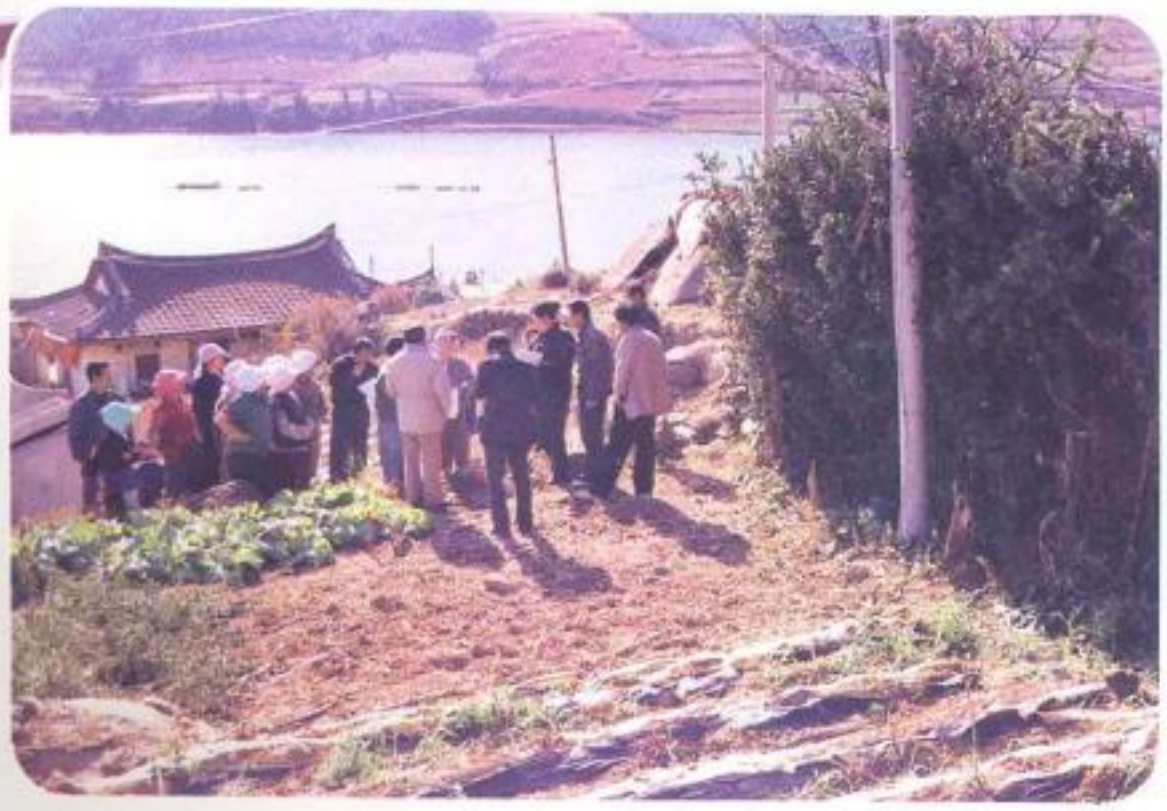


▶ 고흥군의회 박채주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영세모자 가구주 및 소년·소녀 가장등 불우이웃을 초청 위로 격려



▶ 군유재산인 오도간척지 관리사항 파악을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 광경





▶ 포두면 오취리 취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주민반대 청원처리차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의견을 청취

議政消息

1993. 1. 제 2 호

발 행 처 / 고흥군의회사무과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우편번호 : 548-800
전 화 : (0666) 35-1228
F A X : (0666) 35-1228
(행정 364)

발 행 인 / 고흥군의회의장
박 채 주

편 집 인 / 고흥군의회사무과장
신 충 우

취 재 / 고흥군의회사무과
의사계장 김화정

인 쇄 처 / 고 려 사
(062) 227-8672

表題
渊菴 宋 正 熙 題字

차 례

■ 신년사 / 의장 박 채 주 ····· 3

■ 신년사 / 군수 이 정 균 ····· 4

■ 의회에 바란다 ····· 6

● 의회에 거는 기대 / 고흥라이온스클럽 ····· 6
제1부회장 공 영 수

● 의회는 군민의 희망 / 고흥군농민후계자 ····· 8
연합회장 류 범 현

■ 나의 의정방향 / 의 원(16명) ····· 9

■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 24

■ 의정활동의 이모저모 ····· 27

■ 군정질문 및 답변 ····· 38

■ 조례 제·개정 내용 ····· 50

■ 문화재 소개 / 점암 능가사 ····· 52

■ 의회상식 ····· 54

■ 의원명단 ····· 55

■ 투고및방청안내 ····· 57



▶ 제15회 정기회 의사진행 광경('92.12)



▶ '93년 새해 군정방향을 연설하고 있는
— 이 정 균 군수 —



▶ 선진 새고흥 건설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기관과 업소를 방문 선진 질서운동을 계도



▶ '92년말 팔영산 초소 위문



▶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군의원들

신 년 사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오늘 희망찬 계유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 실시 3년째를 맞는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문민 정부가 출범하는 의미 깊은 1993년을 맞이하면서 국운융성과 군민 모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유년 새해는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땀흘려 이룩해온 번영의 고지로 전진하는 민족자존과 민주화합, 통일번영의 새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희망찬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2년은 지방자치의 골격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금년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명실 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아,

우리 의원 모두는 참신한 의사와 열의를 효율적으로 조정, 생동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권익 신장을 위해 정열을 쏟아 나 갈것입니다.

또한 군민과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마련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깊은 애정으로 파악하고 수렴하여,

그 해결 대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는 참 모습을 보일 것이며, 성숙된 의회운영은 물론,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의회운영이 형식과 권위를 앞세우는 낭비적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실로 아름다운 지방차지의 꽃을 피우게 되므로, 모든 군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3년도 우리군의 의정방향을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둘째, 팔영산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 국립해상공원 개발,

셋째, 도로 확포장 및 식수원 개발,

넷째, 인문고등학교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군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하여, 군민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유년 새해에도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1일

고흥군의회 의장 박 채 주



존경하는 십오만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해 보다도 희망과 서기넘치는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희망찬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께서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정중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년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에써 일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동안은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급변의 한해였으며, 새해에도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2천년대를 향한 전남개발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국제적으로는 국제질서 재편과 교역 문제로 국내적으로는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기반 구축과 그에 못지않는 대비등 국제교역의 증대로 나라 경제회복에 합일된 범 국민적 의지를 실천해야하는 엄숙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뜻에서 우리 고흥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개발의 소지가 많은 지역여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통일 전망과 함께 새해 군정역시 지난해와 같이 자치역량의 배양 군민소득의 증대, 그리고 사회복지의 증진, 지역개발의 촉진, 문예 관광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의 배양에 있어서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는 제 14대 총선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훌륭히 치뤄냄으로써 32년만에 처음으로 문민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실로 역사적인 해이며, 새로운 정부의 시책이 펼쳐지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모처럼 이룩한 새정부의 새로운 시책속에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풍토 조성과 함께 신 자치 질서를 창조해 나아가는 수준 높은 군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소득의 증대에 있어서는 UR대책의 일환인 일읍면 일특품 사업의 3차년도를 맞는 올해에는 경쟁력있는 품목을 적극개발하여 고흥농수산물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온갖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합의서 채택과 한·중 수교등을 바탕으로 물자 교류에 큰 희망을 걸고 미래 지향적인 증산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영세민의 구호에 앞서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자금과 생업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탈영세민 정책을 우선화하고,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군민보건 향상과 청소년 선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촉진에 있어서는 계속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역특성 지역균형 개발의 원칙하에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으로 이미 추진중인 나로도 연륙공사와 주암댐 용수 인입사업을 비롯한 고흥만 간척공사, 공설운동장 개설공사등 주요건설사업이 새해와 함께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밖에도 과학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사업, 오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섯째, 문예관광의 진흥에 있어서는 오랜 향토고유의 전통 문화와 풍부한 관광 문화자원을 3차산업의 입지로 삼아 팔영산 개발 나로도 연륙연도교를 이용한 7백여 km의 긴 해안선과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을 관광개발 축으로하여 관광고흥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지난 한해 동안의 군정을 회상하고 새해의 군정을 설계하면서 조금은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이 지역이 오히려 풍부한 개발여건에 맞춰서 보다 축복받는 땅으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땀과 더 많은 정열을 쏟아 일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군산하 전공직자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희망의 시대 1993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각계각층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꿈이 이루어 지시고 각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일년내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1일

고흥군수 이 정 균

議會에 바란다

의회에 거는 기대

고흥 라이온스클럽
제1부회장 공 영 수

30년만에 실시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벌써 두해가 됩니다. 그간 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미력하나 두서없이 몇마디 적어봅니다.

첫째, 인재육성을 위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흥에 있는 초·중고교를 졸업해도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인구도 줄지않고 타지역에 소비도 하지 않은 1석2조의 효과가 있겠지요.

둘째, 지역상품을 개발합시다. 멀지않아 UR이 타결되어 외국상품들이 많이 들어올줄 압니다. 우리군에 알맞는 농수산물 및 특용작물을 많이 개발토록하고, PR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우리지역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군의 재정자립을 위한 시책을 펴야합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랄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담배 판매 가격의 절반정도가 군의 제정으로 충당되고 그 액수가 무려 1년에 40억원이라는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많지요. 양담배를 자랑삼아 피우고 판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소매인들을 볼때에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담배를 피우

는 군민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엽연초재배 농가를 위하고 군의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펍시다. 이웃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서로 인사 잘하기, 개인이기주의보다는 공동의식이 중요함을 느끼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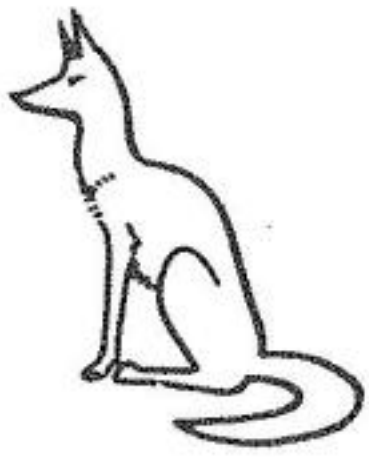
다섯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에 많이 참여시킵시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알고 토론함으로써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장래를 함께 걱정할때 진정으로 좋은 고장이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성세대가 남겨야 할 훌륭한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대표이며 공인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어 살기좋은 고흥 만들기에 힘써 주십시오.

철학이 있는 우화



여우와 포도



이느날 여우 한마리가 포도밭 주위에서 어떻게든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서 도무지 숨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여우는, 사흘동안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뒤에야 겨우 울타리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따 먹었다. 그런데 막상 포도밭에서 나오려 하니,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여우는 다시 사흘동안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

「배고픈 것은 들어갈 때나 마찬가지로군.」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의회는 군민의 희망

고흥군농민후계자
연합회장 류 범 현

계유년 정초는 비로부터 시작되는가 싶다.

작년 한해동안 무척이나 애를 태웠던 가뭄을 이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타는 논을 땀으로 적셔가며 거두어들인 벼를 놓고, 수확된 볏가마 만큼의 기쁨 이면에는 그 이상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던 한해였다.

벼 몇가마 더 수매를 원하는 하소연이나 볏섬을 노상에 쌓아두고 절규하는 함성들이나 이 모두가 생존경쟁속의 필요 악인지도 모른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향토발전을 다짐하며 출범했던 의회와 의원님들 역시 지난해는 농어민의 마음이상으로 안타까웠던 한해였으리라.

출신이 촌민이고 고향이 농촌이라는 이유로하여 도시의 의회보다 한가지 고충을 더 맡은 군의회에 농민후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금번 의회지의 발간에 즈음하여 본군 의회의 성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현재보다 나날이 의연하고 원숙한 의회의 위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의 살림을 보다 규모있게 꾸려나갔으면 싶다.

우리 고흥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면적, 빈약한 자본과 기술로 부유한 고흥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경쟁력있는 산업의 육성, 농촌 경제의 활성화등에 우선 투자하고 고흥 담배 사피우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부담이 가지않는 세원을 증가시키는 등 실속있고 환영받는 의회가 되어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했던 우리의 손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사적인 감정에 동요된다거나 정파(政派)에 연연한다거나 군의원임을 망각하고 면의원으로 착각하여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서는 그런 의회가 아닌 고흥의 균형 발전과 농업의 선진화를 먼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기대한다.

나의 議政方向

"복지농어촌 건설의 조기성취를 위하여"



부 의 장
유 택 근 의원

도덕과 양심을 걸고 우리 고장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자치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의정활동에 임한지 어언 3년째를 맞았다.

이나라 민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원대한 포부와 심오한 이상과는 달리 철저히 제도화된 행정력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한계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생소한 단계임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아쉬움과 아픔이 내일을 위한 몸부림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위에 이나라 민주발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역 일꾼으로 더욱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과연 주민의 대표자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는가? 라고 반문해 보면서 때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반성도 해 보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아직은 설익은 과일 모양 풋내음이 가시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자위도 해 보면서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당면 과제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도시화의 인구팽창과 이농현상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어촌이 살기 어려운 고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낙후되어가는 농어촌을 되살리고 UR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지역민이 지역을 지키면서 소득을 꾀하는 군단위 대규모 사업들이 유치되어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복지농어촌 건설이 우리에게 절실이 요구되는 책무가 아닌가 싶다.

이제 겨우 걸음마 행진을 시작한 우리 의원들에게 뛰는 훈련을 위하여 군민들의 지도와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란 주민자치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의 참여의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진데, 주민과 행정을 집행하는 군과, 의회가 동반자적 위치에서 상호 타협과 이해로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복지 농어촌 건설이 조기에 성취되리라 기대하면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새롭게 다짐해 본다.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운 영 위 원 장
김 동 인 의원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과 함께 우리 의회가 구성 개원된지가 벌써 두해가 다 되었는데 그간 군민을 위해 우리 의회가 얼마나 봉사했었는지 반문해 보면 군민복지를 위해 애썼던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갖어 보기도 하면서 그간 생소한 의정생활과 전문지식 미숙으로 더러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던 점 겸허하게 반성해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군민 각계 계층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객관적인 판단, 또 이를 수용하고 올바르게 처리하여 부수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여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역사와 군민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서 특히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각오입니다.

一. 예산 심의시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지역개발비에 지원하고

一. 농·축·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며

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불합리한 방법으로 특정 지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감시 감독 개선할 것이며

一. 각종 크고 작은 관급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설계 감독 등 은밀하게 통용하고 있는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은 주민화합의 지름길"

총무위원장
송기복 의원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닐지라도 2년전 (91년)부터 지방의회가 형성되어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을 살펴 보다 나아진 군민생활에 주도역을 하고 있음은 민주화에 진일보한 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흔히들 말하기를 한 나라에 있어서 균형된 지역개발정책은 소외된 지역주민의 불평이나 불만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대화합을 도모하여 이상적인 민주국가 건설을 앞당긴 지름길이라 하였다.

그러면 지역이란 일정토지의 구역또는 그안의 땅을 말하는데 지방이란 용어와도 같이 쓰이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부니 영호남 등등을 말하는가 하면 특수조건을 감안 도서, 연안, 도시, 농촌, 산간오지등으로도 구분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시급한 대소규모의 민원사업과 지역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숙원사업이 목전에 가로놓여 있을 것이로되 균형된 사업책정이 주민화합 대책으로서 우선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본군의 '93예산을 살펴보면 총규모 928여 억원인데 지역개발사업비로 13%인 119억이 책정되었다.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힘겹게 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낙하산식 특정사업은 군비부담을 가중케하니 예산편성은 더욱 어려울 줄 안다.

특히 각실과소에서는 자기 직무분야에 따른 사업만을 충실히 수행하려 하기에 지역균형을 위한 사업계획은 의중에도 없고 오직 지원목적사업 책정에만 급급하여 특정지역으로 편중됨을 모르고 있다.

관계관을 불러 내용을 물으면 목적사업이기에 부득이한 사정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도서개발 사업비는 도서에만, 소도읍 건설 사업비는 도시계획지구에만 책정되는데 한해 신축성있는 일반개발사업비는 특정지역개발사업비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다시 균배함으로 일반지역은 보나마나 떡고물 정도로 작은 애미 날지내듯이 형식적으로 배정함을 엿볼 수 있다.

누가 이처럼 지역을 나누어 불균형 행정을 하도록 책정하였는지?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후진을 면치 못하게 되고 지역개발이란 백년 하청격이다.

관리자는 참모들의 자기분야사업을 보고 받아 지역개발의 균형화를 위해 특정사업비 혜택을 입지 못한 지역에는 일반사업비로 특배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참모들의 안일무사로 관리관이 종합계수를 파악하지 못한듯한 인상이다.

「명장뒤에는 참된 모사가 있고 성군곁에는 현신만이 모여든다는데?」 관리관은 전역을 의중에 두고 주민의 불평

불만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조치되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

특히 우리 군의 지역체정이 일반지역보다 특수지역이 80%나 되니 일반지역이 반대로 특수지역이라하면 차라리 좋지 않을지?

「중앙방침에 따라 특수지역은 개발비가 많아 기쁨을 참지 못하고 비해당지역은 찬바람이 스치고 매마른 땅에 개미가 코를 골고 있으니 그 지역주민들더러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권하겠는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어느면은 수억, 수천만을 들여 장래를 기약하는 함마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데 어느면은 관리관이나 참모들의 영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하라고 조업비 몇 푼을 예산서에 올리는 몰상식한 참모나 이를 알고 묵인한 관리관이라면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해 볼 일이라」 이것이 '93예산중 지역개발사업부분의 한단면이다. 의회가 숨쉬고 있는데도 이렇다.

군민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다.

의회없는 지난날에는 어떻게 군예산을 편성하여 도의 승인을 얻었는지 능히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자도 심의자도 깊이 검토하여 우를 범하지 않고 발전적인 업무수행으로 군민화합의 요체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나 의 회 고



산업건설위원장
김 남 규 의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벌써 두 해를 보내고 3년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그간 나의 의정활동을 잠시 되돌아보며 겸허한 반성을 해본다.

흘러간 2년동안 군의원으로서 군민복지향상과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는지 회고하여 본다.

특히 2년전 군의원 선거당시 면민을 향해 우리의 숙원인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면민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다며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생활 3년째인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 지난 2년간의 세월이 자못 아쉽게 흘렀나 보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써 추진한 결과 일주도로 10여km 확장, 2km의 포장과 도서개발사업등 지역여건에 맞는 대소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극히 미미한 실적에 지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면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다



이 경 수 의원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임기 절반을 마쳤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동했는지 자성해야할 엄숙한 순간이다.

소외받은 농어민과 영세상공인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생활환경보호와 자연환경보호 및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과 선후완급을 철저히 가려 나아가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사의 표현이요, 행정은 그 표현된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프랭크 굳노" 교수는 일찌기 말한바 있다.

고흥군 행정이 얼마나 고흥군민의 의사를 잘 반영했는지를 다시한번 재확인할 입장에 서 있다.

권위주의 행정이 서민봉사 행정으로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능동적인 행정으로 주민과 행정의 사이를 맴돌면서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쏟겠습니다.

계유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틈나는데로 일일이 찾아뵙고 정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해 본다.

돌이켜보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화시대가 서막되면서 중앙집권에 억눌렸던 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 지역이기주의가 생겨나고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이 빈약하여 주민욕구를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던 점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지만 열악한 재정이기에 더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 낙후된 내고장을 복지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일주도로 조기 완공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어류·축양사업지원 확대와 고소득 특용작물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력 조화를 이루면서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잔여 임기동안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민의에 밀착된 감각 행정을 희구해 보면서"

박 동 래 의원

민의의 전당인 지방 의회가 구성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해를 보내면서 무척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간 나의 의정활동은 어떠했는지, 잠시 돌이켜 보면서 겸허한 자성과 더불어 금년 한해를 설계해 본다.

지난 2년동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을 펼쳤지만 전문지식 결여와 경험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의정활동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간의 의정을 거울삼아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으로 행정 써비스 개선등 주민의 여론에 민감한 감각 행정을 펼쳐 군민이 친화감을 갖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열성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의정을 펼칠것이며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는 물론 군민의 부푼 꿈을 실현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부단히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따라서 진정한 봉사자는 사욕과 사심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제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이 도덕과 양심이 없는 뿌리에서라면 그것은 결코 오늘을 사는 시대적 사회의식에 배반된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군민과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군)와 의회가 모두 건전한 동반자가 되어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회관련용어

※ 발의·제출·제의·제안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 제안 : 발의·제출·제의를 포함한 개념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두 협력하는 새로운 인식 전환기 되어야"

신 윤 식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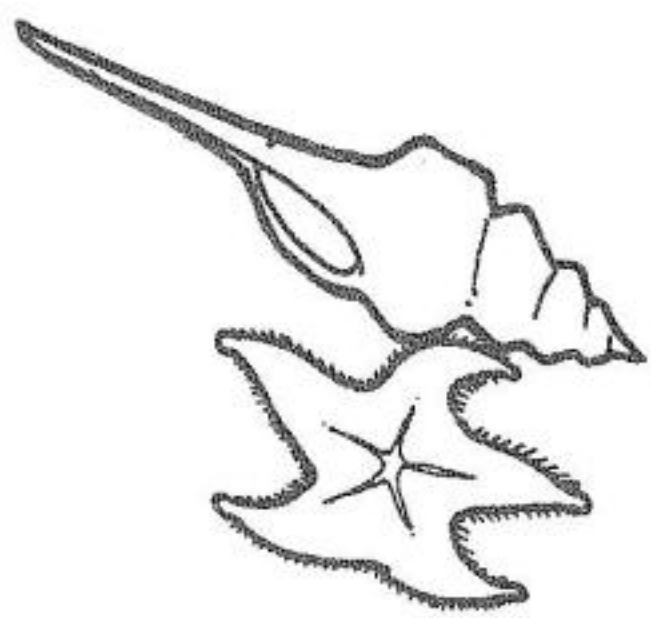
과거 우리는 능률과 편의를 앞세운 중앙관서의 획일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정책에 의해 우리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지역발전이 이룩되었으며,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지방의회 개원3년째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는 지역발전과 정책결정에 있어 소수의 주민 의견까지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입학생 같은 심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좌충우돌 해가면서 군정을 질문하고 파악함은 물론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배운점도 많았고, 또한 제도적 개선과 주민의 발전적 의식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기도 했다.

성장과 개발을 위주로한 발전추세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로 인하여 환경 오염과 자연파괴로 전래의 생활주변이 어느새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례를 보게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신중성이 더욱 고려되는 문민시대의 지방자치 행정의 어려운 여건을 다 같이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가 결집된 대안의 시행을 위하여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행정의 전문성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는 일꾼으로써 임기동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민의에 바탕을 둔 의정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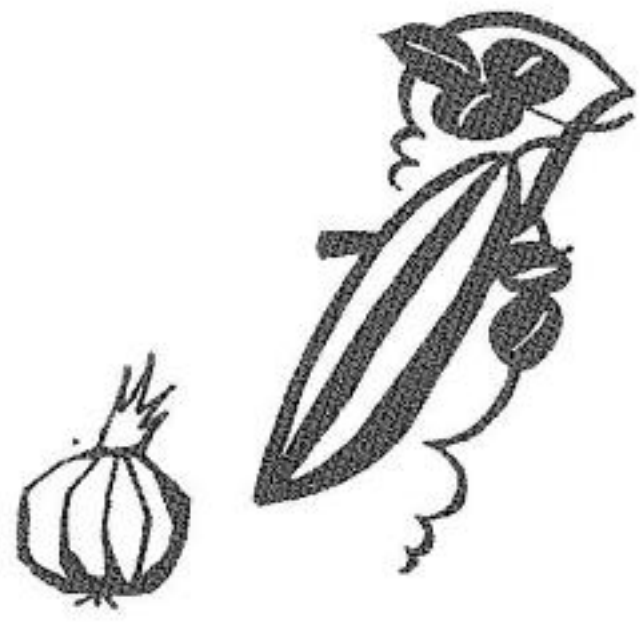
류 준 상 의원

수년간 억눌렸던 주민의 욕구가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느껴본다.

그것은 한동안 주변 다수의 의견보다 획일적인 중앙 정부 지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가운데 일부 군민의 집단 행동이 지나치게 표출되어가고 있으며 집단 민원이면 그 진의는 둘째두고 대부분 처리(해결)해 주었던 과거의 행정에도 문제가 없진 않다.

집단 행위가 능사가 아님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민주주의란 소수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어떤 일이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소신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차제에 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생각되어 막힌곳과 고여 있는 곳은 뚫고 치워서 구태의연한 행정의 사각 지대를 반드시 일소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갇힌 봇물처럼 터져 나온 주민의 욕구와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여 민의에 밀착된 활동을 적극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전달, 공감대를 형성 하므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으로 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 2000년대를 향한 희망찬 복지 고흥 건설에 정열을 쏟아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다지며

고 임 준 의원

고흥군의회 소식지 제2호 발간에 즈음하여 글을 쓰면서, 삼가 숙연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사항을 뒤돌아 보면서 자성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도서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지난 약2년간에 어떤 활동을 해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실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다.

모든 국민들이 갈망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인 지방자치 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아직은 절름발이 형식이 되고 있기에 많은 고충이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행이 난감한 실정이다.

한 동안 중단되었던 제도이기에 주민들도 아직은 생소한 감이 있으며, 경제적인 부흥과 민주화의 초석을 여는 원년 의원이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른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1년에 60일간의 회기중에 군정질문, 예산심의, 행정감사,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행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하게한 예산을 조정 운용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관행으로 행하는 것을 탈피하고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했으며, 농어촌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주민을 위하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 하였다.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을 위하는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였기에 소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았다.

제일 역점을 둔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도로망 확충과 포장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쓰레기장을 건립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했으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방파제를 설립해서 태풍과 해일 피해 예방에도 힘쓰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지역적인 분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사업은 못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점차 시행되도록 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물론 출신 지역구에 안주하지 않고 고흥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겠다.

군의원의 막중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서 해결되도록 해야하며, 부단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으로 앞선 행정 방향도 제시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군민 모두의 숙명 과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특징적인 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점에 있다.

따라서 청정해역인 다도해를 근간으로 대단위 해상공원을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적합하므로 종합적이고 년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지방자치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하여 지기에 훌륭하게 발전시켜 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군청, 주민 등이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견제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고장은 살기좋은 낙원이 될 것이며 풍요와 즐거움이 넘치는 성스러운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 이상을 꿈꾸며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숙고해 보면서 남은 기간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의회관련용어

의사일정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당해회기 전체의 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 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일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게재한 것.



봉공과 희생의 정신

최 형 문 의원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년째 되는 해로 군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시키는 해로 삼고 보다 실질적이고 군민과 직결된 지방자치 구현에 최대 역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개원 2년째를 보낸 군의회는 30년만에 부활될 지방자치 실시의 감격과 함께 그동안 지나온 의정활동의 실과 허를 다시한번 평가해 보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군의회 위상 정립을 모색해야 겠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땅에서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라"라는 「루터」의 말을 상기하여 봐야겠다.

우리는 성부족, 역부족, 자각부족 때문에 되는대로 하기 쉽고 불성실하게 하기쉽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다 해서 하는 것이요 양심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요 능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보람있는 순간 순간이 모여서 보람있는 하루가 되고, 보람있는 하루가 모여서 보람있는 한달이 되고, 보람있는 한달이 모여서 한해가 되고, 또 보람있는 일생이 된다. 우리는 보람있게 살려면 그때 그때 자기가 하는일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

군민속에 깊이 파고 들어 군민이 가려워 하는 곳을 찾아 내어 긁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정도로 마음이 통하여 군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는 참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겠다.

진정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입니다.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 지역의 토양위에서 고흥의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짧은 지방자치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갈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의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깊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봉사행정을 희구하며

김 선 규 의원

희망찬 계유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년째가 되는 해다.

이제 군민이 우리의회에 거는 기대에 충족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견제와 감시보다는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렇다고 집행부 모든 행정을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성이 결여된 관계로 소홀한 면이 다소 없지 않다.

그 실례로 각종 농어촌 도로가 개설된 이래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차후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조속한 시일내에 전군 관내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공부상 미등재된 곳이 없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며, 모든 행정처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에 의한 행정,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와 봉사행정을 펼쳐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행정이 되도록 적극 감시 촉구하는 한편 주민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용작목을 개발하도록 계도하여 주민소득을 배가 하므로써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부단히 연구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성숙된 의정 활동 펼칠 터

송 복 조 의원

일찌기 민주주의에 대한 현장적 경험이 일천했고 의정활동의 경험이나 참고가 될만한 자료도 없이 그리고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부족과 많은 어려움으로 다소의 우를 범하지 않을수 없었던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 성숙되고 한차원 높은 의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것이며,

특히 군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렴, 충분히 검토 연구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상을 보여줌으로써 군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지방 의회의 출범 이후 비록 짧은 역사의 숨가쁜 현장속에서도 현실의 반성과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고흥군 종합개발 필요성에 관하여

박 용 호 의원

군민의 여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정치권의 이해에 얽힌 협상의 산물로 출현한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의 조성과 완전한 제도의 구축을 미처 마련치 못한 채 서둘러 시행함에 따라 현재 의원들의 뚜렷한 이미지 부각도 집행부의 대응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년여의 일천 경험과 평소 본 의원뿐만이 아닌 타의원도 무척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고흥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구상을 기술해 보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본 군은 팔영산 높은 봉에 정기를 수려받은 웅군이다.
장기적인 안목의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도 기획적으로 추진할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미래의 꿈과 이상의 나래를 펼치고 부풀은 기대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공존의식이 확대되어 내부적 힘을 축적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현재 군에서 각 실과소별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재정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중어정책 10개년 계획, 면복지회관 10개년 계획,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정주생활권 20개년 계획등은 면단위로 실과소별 수립되어 있어 군정전반의 종합개발계획에 연계가 안되었으며, 이를 권역별 중심으로한 지역특성 및 주민의 개발의사를 토대로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전체 계획하에서 고흥군 종합개발계획으로 통폐합하므로써 일괄 종합적, 기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종합개발계획의 목표로는,

우선 군민소득증대로 중점을 두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야 하고 생활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공간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 종합개발계획의 역할에 있어서는,

첫째, 거시적 역활로 실천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해야 하며, 고흥군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제시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 상위계획에 의한 지역적 균형개발 목표를 실현하여야 하고,

둘째, 실질적 역할로는, 예산편성 및 심의의 준거와 방향을 그리고 국가시행사업 유치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계획의 목표년도 및 기간설정은,

궁극적 장기목표로 2002년으로 하되 제1단계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년차별 5개년 계획과 제2단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체적인 물량 균형계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경제, 사회복지, 생활환경정비, 환경보존계획으로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믿고 인내로써 참아야 하지만 아무런 노력없이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가 언제 가도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군민 특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소망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꾸준히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현재 집행부가 수립해야 할 『고흥군 종합개발계획』에 거는 군민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본 계획은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체계있고 심도있는 사안으로 보다 알차고 건전하게 수립되어 고흥군을 선도할 참다운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군민 살피기를
가정처럼 살피겠다.

송 용 현 의원

민주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기초의회가 개원된지도 2개년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동분서주 하였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 순수 농어업이 주 소득이 되고 있는 우리군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사업과 미진한 기반시설이 균등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주민이 의문시하였던 각종 자료들이 반영되고 이의 추진을 공개하도록 깊

이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역 주민이 성원하여주고 기대한만큼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던 사항들을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점검하여 미진된 사항은 적극적인 추진으로 남은 의정 임기중에 기필코 마무리 되도록 할 것이다.

군민의 살림을 보살피는 군의회의 일원으로서 원칙을 무시하지않고 순리에 따라 명분있는 행동으로 행정부와 조화를 잘 이뤄 나갈 계획이다.

'93년은 지역주민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아직도 미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기초의원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부족함이 없이 실천하여 나갈것이다.



성숙된 의회 문화상 정립

정 영 표 의원

지방자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제도나 처음거치는 과정이 아님에도 지난 그간간의 의정활동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미숙함 그리고 집행부와 주민의 인식 착오로 빚어진 오해와 갈등은 극복하기 힘들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라가 지향하는 사회와 시대정신을 조감할 때 책임과 의무의 체득, 그리고 다수 의사와 함께 소수 의사의 존중과 질서를 국가발전의 우선 가치로 삼고, 민주사회의 건설과 고도 산업사회건설 및 문화사회로 승화와 부조리로 인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므로써 인간성이 존중되는 건전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도덕성과 신뢰성, 그리고 역사성과 보편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군 의회의원은 당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초대부터 위에서 기술한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노력과 업적이 후손에게 미칠것을 의식하고 매사를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며 군림하지 않고 설득하며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하여 선출된 공인임을 자각하고 봉사자로서 살신성인 하는 정신과 강력한 지도자적 이념으로 공익을 우선하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진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일들을 처리 하였습니다.

(창간호에 1회－10회까지 수록 하였음)

'91－92 안건 처리 상황

회의 회수	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	일반 안건	비고
계	128	54	7	1	66	92년말 기준15회
91(7회)	87	29	4	1	53	1회-7회
92(8회)	41	25	3		13	8회-15회

제 11 회 임시회(1992. 8. 20－8. 29)

- 제11회 임시회에서는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불합리한 군정은 시정토록 촉구하였고, 조례 4건을 개정하였으며
-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53%가 넘는 우리군의 경우 약 30여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므로 목적세 신설 반대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철회 할것을중앙에 촉구하였으며,
- 양담배 추방, 에너지 절약,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목표로 선진고흥건설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군민에게 홍보키로 하였으며,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윤식의원)의 심사를 거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수정하여) 1,936,995천원을 승인하였다.

제 12 회 임시회 (1992. 9. 30)

- 제1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3건을 개정하였고, 본 임시회에 앞서 9. 23－9.26일까지(4일간) 총무위원회(위원장 송기복의원) 주관으로

공유재산관리 현지조사를 실시 매각 타당성 여부 확인결과를 토대로 매각대상 토지 총 112건중 5건을 불 승인하고, 107건을 승인하였으며,

- 9월 22일 고흥읍 가축시장 및 오도간척지 관리 상황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였던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 '91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박동래의원, 정영표 의원, 고흥수협 차종훈 실장)을 선임하였다.

제 13 회 임시회 (1992. 10. 24-10. 26)

- 제 13회 임시회에서는 농어촌 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본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 제18회 고흥군민의날 행사 개최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된 경위 보고 청취후 신윤식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통하여 군민의 날 행사 중단경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제 14 회 임시회 (1992. 11. 12-11. 21)

- 제14회 임시회에서는 제15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고,
- 3건의 조례 개정과 오도간척지 소송사건 처리계획 동의안 및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추가 배정요청의건을 승인하고, '93년 지방 자치단체 정수물품 배정 요청은 심사자료 미비로 유보하였으며,
- 선전군민 의식함양은 물론 담배 소비세로 인한 세입증대와 교통거리 질서확립, 에너지 절약등 홍보를 위하여 선진고흥건설 위한 캠페인을 실시키로 결의 하였다.

제 15 회 정기회 (1992.11. 25-12. 24)

- 제15회 정기회에서는 12. 2-12.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선규의원)을 실시하였으며,

-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배정요청 총 255건중 2건을 유보하고 253개 물품을 승인 하였으며,
-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 이정균 군수로부터 1993년도 군정 시책방향과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임준의원)을 구성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승인하였으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예산안중 1,663,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92,810,134천원의 '93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 9,612,346천원 집행부 요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므로써 '92년 예산 총액은 968억 97,881천원으로 확정하였다.

'92 추가경정예산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추가경정예산액(요구액)
계	96,897,881	87,285,535	9,612,346
일반회계	58,272,418	55,666,891	2,604,527
특별회계	38,625,463	31,618,644	7,006,819

일반상식

지방의회권한

□ **지방의회 의결 사항(법 제35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조례에 정해진 사항

의정활동의 이모저모

◈ 공정회 개최

'92년 9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고흥읍 가축시장 관리상황 및 오도간척지 소송사건 진행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시 담당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업무취급 소홀에 대한 진의를 묻고 답변을 들으므로써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다.

◈ 매입매각 대상 군유재산 현지 조사

'92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기복의원을 중심으로 매입 매각 대상 군유재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 매각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여 제12회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 우박피해 현장조사

'92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양일간 우리군 관내 6개 읍면에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10월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우박피해상황 보고 청취후 산업, 건설위원장 김남규의원을 중심으로 3개 현지 조사반을 편성, 피해현장 확인후 수도작은 물론 전작물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보상대책을 군과 협의하였다.

의회관련용어

◈ 집회와 개회

1) 집 회

○ 의원이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

2) 개 회

○ 회의가 집회되어 한회기동안 회의를 시작하는 것.

농촌 일손돕기



7월 18일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려 때아닌 농번기가 되자,

전체 의원들은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점암면 신안리 일대 미이양 답 1천여평의 모내기 일손을 도우므로써

적으나마 군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의회상을실천하였다.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채택

빈약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더욱 초래하게 되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제1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의하였다.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53%가 넘는 우리군의 경우 약 30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게 된다.

목적세신설계획철회촉구결의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및 중앙 통제강화 의도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중앙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연대 투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개혁이나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위해 중앙통제 지향의 정책에 결사 반대한다.

1992. 8. 29

고흥군의회의원일동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채택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는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불리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군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을 제15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다.

쌀 수입개방 반대결의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쇠존폐를 좌우한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 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 농사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어 있는 UR협상으로 그 존립기반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주장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농업여건상 쌀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천명 한 바 있었으나 협상은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마저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써 식량안보차원의 경제외교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 또한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고흥군의 경우 산업구조에 있어 78%가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전농가의 90%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60%를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이 개방되었을때 고흥군 농촌이 받아야하는 충격은 어느 시, 군보다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16명 일동은 고흥군 7만 6천 농민은 물론 15만 군민을 대표하여 쌀 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UR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적 여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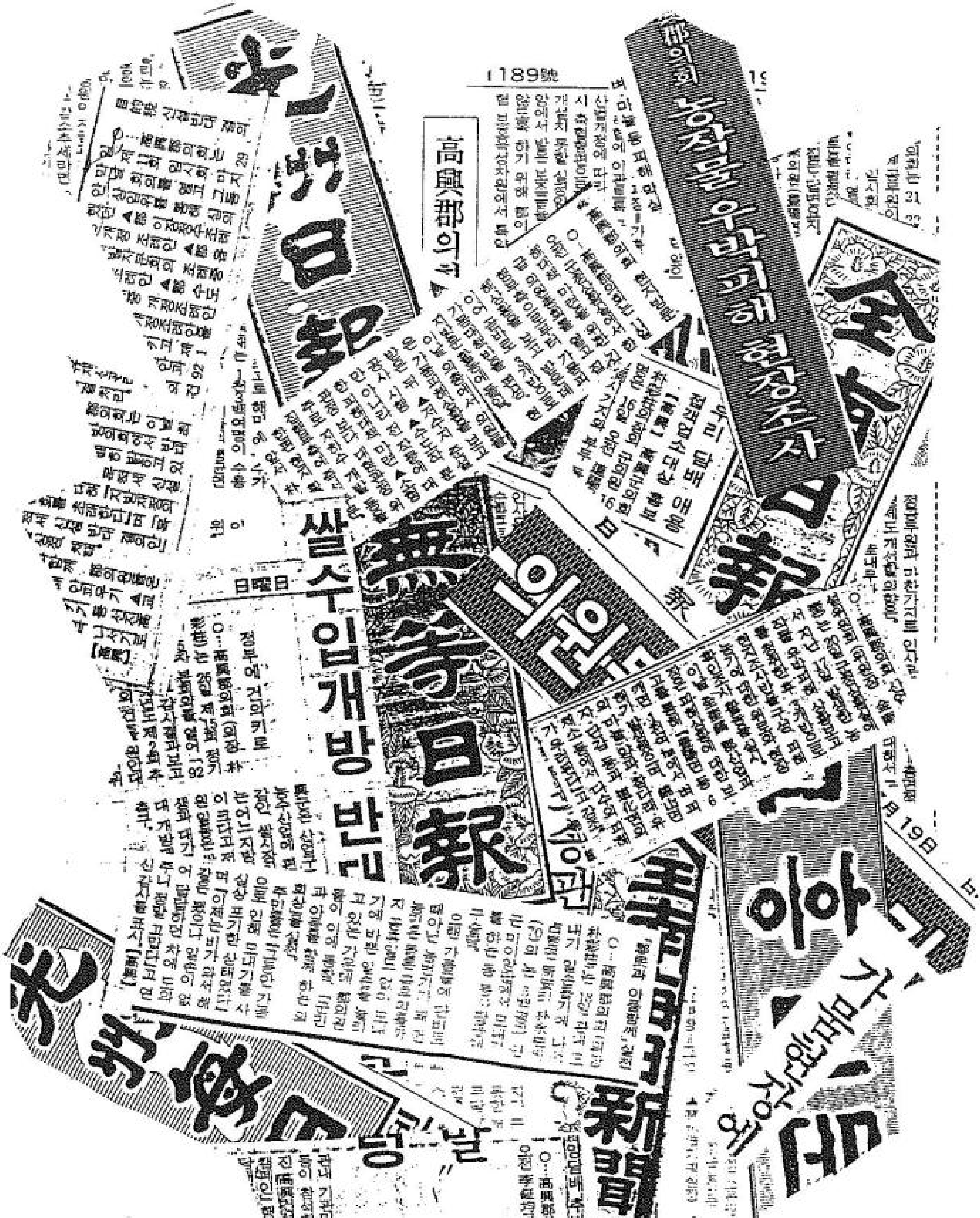
둘째 : 정부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 우리는 정부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 고흥군의회 의원 16명 모두는 전통 농군의 한 사람으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할 것을 15만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 12. 24

고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1189號
高興郡의회
농작물 우박피해 현장조사
日曜日
쌀수입개방 반대
정부에 건의키로

청 사 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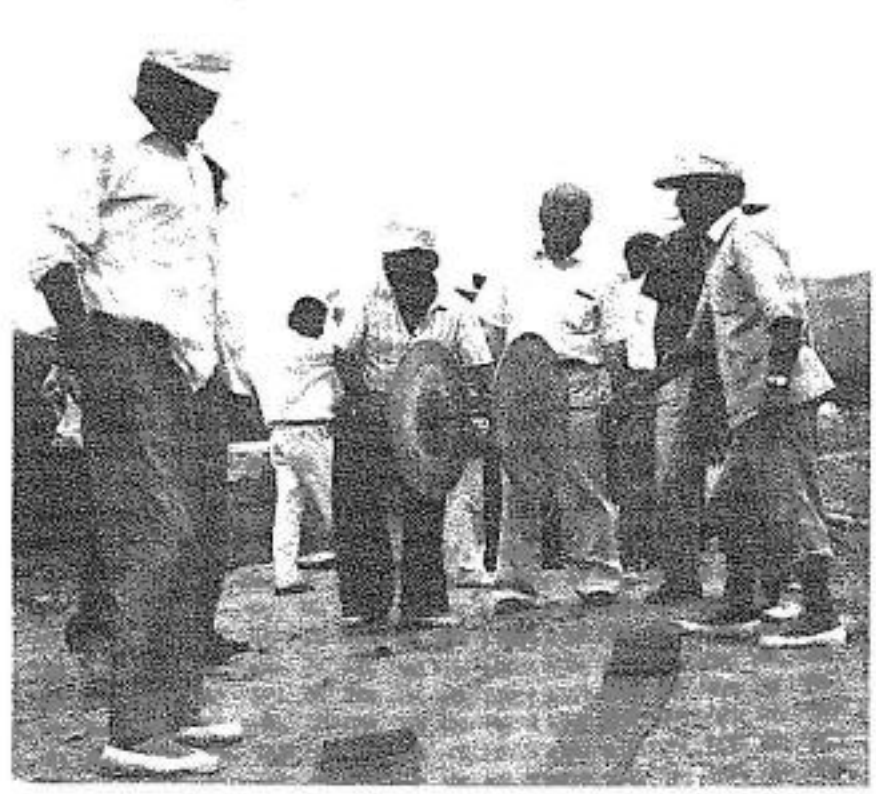
'91. 4. 15일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우선 별도 가건물을 건조하여 사용해 왔다.

제반여건상 신축 지연이 예상되고 아울러 3개 상임위원회(운영, 총무, 산업건설)신설과 전문위원증원으로 부득히 군 본청 4층에 60평 상당의 의사당을 가건물로 건조하고

기존 사무실 3칸을 개조하여 의장실, 부의장실과 각 상임위원회실을 협소한대로 마련하고 '92. 12. 4일 사무실을 옮겼다.

한해지구 현장 순회점검

'92. 7. 11 한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하여 관계부서로부터 관내 가뭄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전체 의원을 3개반으로 가뭄대책반을 편성 현지조사 및 지원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 ○ 저수지 준설작업
- ○ 수도작은 물론 전작물 피해대책 마련
- ○ 소형관정 보다 대형관정 굴착등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군에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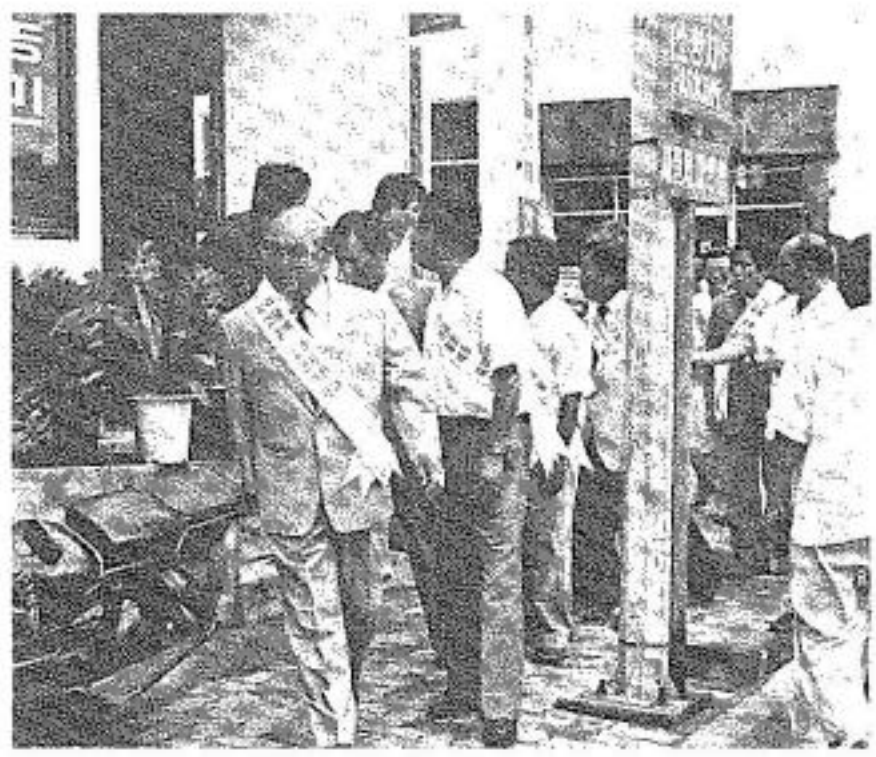
의 회 관 련 용 어

◙ 정회와 속개

○ 정회란 당일의 회의도중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일시중단하는 것.

○ 속개란 일시중단 하였던 회의를 다시 시작한는 것.

선진고흥건설을 위한 운동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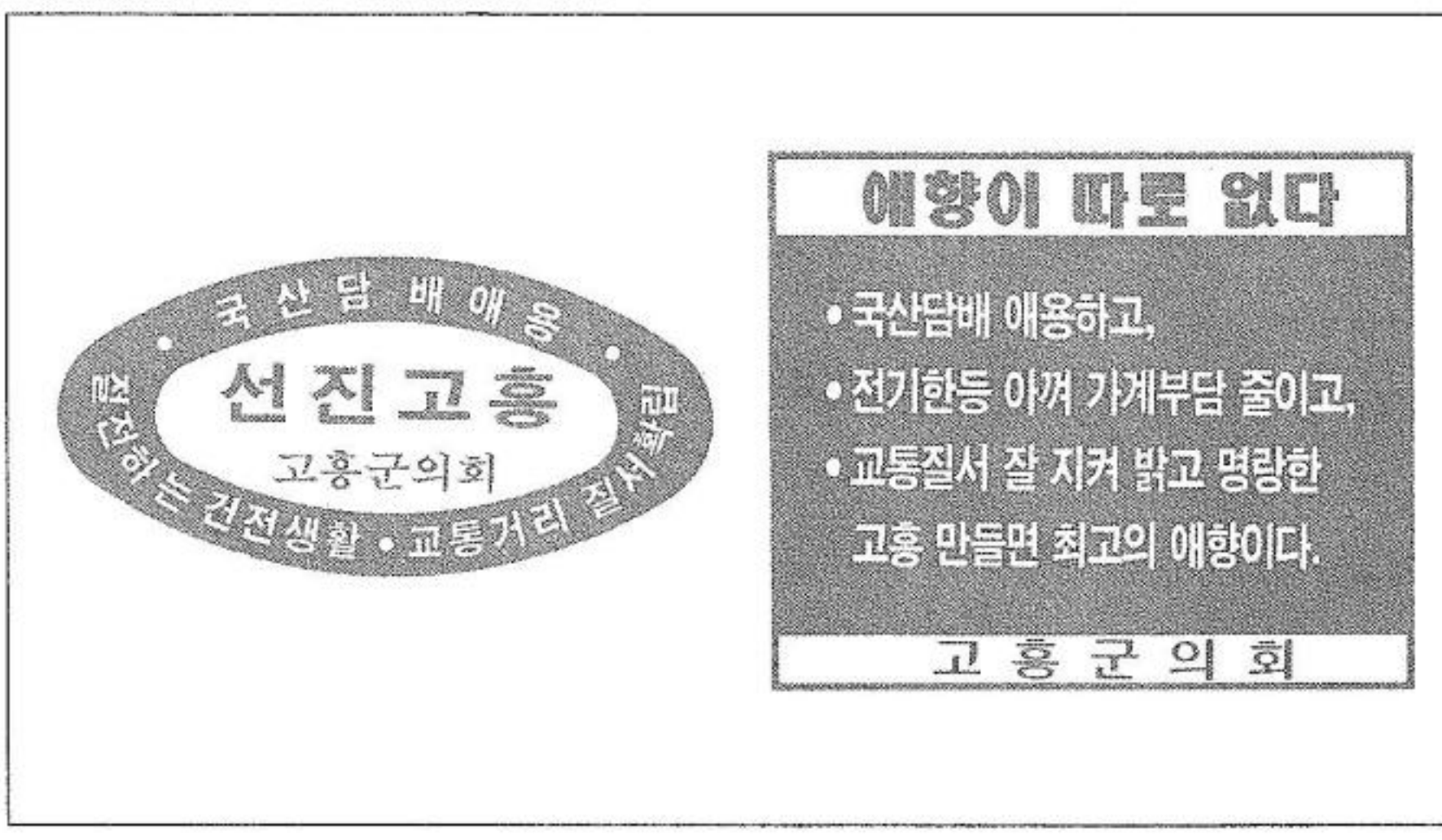
제11회 임시회에서

- ○ 양담배 추방
- ○ 에너지 절약
- ○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목표로 선진고흥건설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대적인 홍보운동에 나섰다.

9월 8일과 10월 7일 2회에 걸쳐 관내 기관장 및 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 업소 방문과 거리에서 홍보전단 배부 및 스티카를 부착하였으며, '92년 8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본 운동에 온 군민이 동참하여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본 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故事名言

名 句

※ 江南에 심은 橘은 江北에 옮기면 탱자(枳)가 된다.

◘ 比 喩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살고있는 周圍環境이 달라지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다.

◘ 이 야 기

① 春秋時代 末期에 齊나라에 有明한 晏嬰이란 宰相이 智慧와 政略이 뛰어났고 口辯과 膽力이 대단했다.

特히 키가 작은 것으로 이름이 各國에 더욱 알려져 있었다.

어느해 楚나라 靈王이 齊나라 晏嬰이 하도 有明하다니까 招請하여 얼굴이라도 보고 한번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心術이었다. (中略)

楚王은 晏嬰더러 簡單한 人事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齊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길가는 사람끼리 어깨를 마주 비비고 발꿈치를 서로 밟고 지나간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卿과 같은 사람을 史臣으로 보낸 까닭은 무엇이오?

(晏嬰의 키작은 것을 비웃는 것이었다. 外國史臣에게 이런 失禮되는 말이 없겠지만 齊나라를 대단치 않게 보았기에 弄談을 함부로 했다.)

晏嬰은 서슴치 않고 泰然히 對答 하기를 저의 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때 相對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낸 慣例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서는 작은사람,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臣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편에 屬하기 때문에 뽑혀서 楚나라로 오게 된 것이 옵니다.

楚王은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中略)

② 楚王이 바라보고 있는 뜰아래로 멀리 捕吏(下吏)들이 罪人을 묶어 앞세우고 지나갔다.

여봐라! 王은 捕吏를 불러세웠다.

그 罪人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齊나라 사람입니다.

죄명이 무엇이냐? 竊盜犯입니다.

楚王은 晏嬰더러 齊나라 사람은 元來 도둑질을 잘하오?

晏嬰은 超然한 姿勢로 대답하기를 (江南種橘 江北爲枳) 江南의 橘을 江北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마는 것은 土質때문이 옵니다.

齊나라 사람이 齊나라에 있을 때는 元來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가 楚나라로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楚나라의 風土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했다.

철학이 있는 우화

◆ 나무열매

어떤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광경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

라고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나그네의 물음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까지야 살 수 없겠지. 하지만 관계 없다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과수원에는 과일이 많이 열려 있었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심어 주셨기 때문이야.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세.」

'93 예산 928억 확정

일반회계 650억, 특별회계 278억

의회에서는 지난 제15회 정기회의에서 고흥군의 '93년도 예산 928억을 확정하였다.

'92. 12.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9일-10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임준)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일반회계 64,996,216천원과 특별회계 27,813,918천원 총 92, 810,134천원을 확정하고 군(집행부)으로 이송하였다.

◈ 예산심의 역점사항은

- ○ 불요불급한 사항이 관례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 ○ 경상적 경비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계상은 없는가?
- ○ 물가상승을 이유로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목은 없는가?
- ○ 보조금 지원의 적정여부등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역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분석과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한 결과 1,663,213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 조정하여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 의결하였다.

◈ 세입분야

구 분	금 액	구성비
계	**92,810,134**	**100**
지 방 세	5,488,000	5.9
세 외 수 입	25,108,507	27.0
지방교부세	31,405,000	33.8
지방양여금	6,369,176	6.9

구 분		금 액	구성비
부조금	소 계	24,109,451	26.0
	국고보조	17,399,941	18.8
	도비보조	6,709,510	7.2
지 방 채		330,000	0.4

(단위 : 천원)

◙ 세출분야

일 반 회 계		
기 능 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64,996,216**	**100**
의 회 비	514,473	0.8
일반행정비	15,948,988	24.5
사회복지비	7,641,591	11.8
산업경제비	25,473,631	39.2
지역개발비	11,951,128	18.4
문화및체육비	583,085	0.9
민 방 위 비	430,448	0.7
지원및기타경비	2,452,871	3.7

특 별 회 계		
회 계 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27,813,918**	**100**
상 수 도	2,688,375	9.7
주 택 사 업	1,293,284	4.6
의료보호기금	2,164,101	7.8
새마을소득기금	20,000	0.1
새마을소득특별자원	204,350	0.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1,953	0.2
혜창,오마간척사업	695,825	2.5
농공지구조성사업	54,936	0.2
공유임야관리	100,000	0.4
지방양여금사업	10,549,094	37.9
고흥지구간척사업	9,982,000	35.9

의 회 관 련 용 어

◈ 질문과 질의

○ 질 문 : 지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것 → 구두 또는 서면

○ 질 의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용을 묻는 것 → 통상 구두

군정질문 및 답변

● 도시계획중 소방도로의 경우는 시설부지로 결정 고시된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10년 20년을 내다보아도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을 합리적으로 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왔드라도 언제 몇년도에는 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는 집행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주민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중 잘못된 곳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되는데 해제하고 싶어도 일정량의 대체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나 규정은 잘된 법이라고 보는지?

잘못된 법이나 규정이라면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또한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인데 지금까지 징수한 세금의 액수는 얼마이며 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이 경 수 / 의원—

○ 우리군 도시계획 대상은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으로 2개읍3개면13개리로 총면적 27,695㎢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유보지역이 있으며 전체 사업은 지방비로 시행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으며 20년 단위의 장기 기본 계획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을 수정, 보완토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흥읍은 85년 도양읍은 88년도에 재정비 하였으나 상대성이 있고 토지 이용 불균형 유발과 제정비시 막대한 군비 투자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민원을 최소화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건설, 내무, 재무부장과 협의) 도시계획 시설 편입 토지의 은행담보 대출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집중투자 개발토록 도지시가 있어 92년 7월 우리군 대상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 기시설 결정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 우선순위를 정해 년차 계획 수립 재정비할

계획에 있으나 중,장기적 재원 확충 및 지원 없이는 무의미한 사항이기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지 못하였으므로 집행계획은 곧 사업시행이라는 방정식이 성립 되도록 지방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량의 대체 부지 확보는 도시의 특성과 기능을 그리고 장기종합 계획이 되도록 인구, 교통, 산업구조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결정하므로 꼭 변경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 징수 실적은 92년도 목표 1억 4,400만원인데 현재 징수 7,669만원으로 53%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 김 연 수-

● **지난 8월 13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92년 5월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의 정수장 수질현황을 일제히 조사 발표한 사항에 도양읍 강동 정수장은 철분이 기준이 2배가 넘는 0.7PPM이 검출되었고, 암유발을 시키는 염소가 타 정수장에 비해 2-3배 이상 투입함으로써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 0.1PPM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도양읍 모든 수용가는 불안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에 관한 경위와 대책은?**

—유 택 근 / 의원—

○ 드리할로메탄은 메탄의 유도체로써 수소분자 4개중에서 염소 취소, 독소의 3개사로 추합된 우기할로겐 화학물질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식물의 부패, 생성물, 산업폐수, 도시하수로 발생되는데, 강동수원지는 상단부인 농경지 일부만 있어 이것을 유발시키는 조건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지난 4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는 0.1 기준에 0.07, 5월에 0.08, 6월, 7월에도 0.08의 수치가 나온것을 볼 때 기준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과 망간의 기준은 0.3PPM인데 5월달 검사시에는 0.15PPM, 6월달에는 불검출, 7월달에는 0.44PPM이고, 염소는 150PPM에 5월달에는 5.2PPM, 6월달에는 5.0PPM, 7월달에는 0.3PPM밖에 검출이 안됐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군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월 3회 군 보건소에서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등, '91년 7월 11일 급수한

이래 총 46회를 실시, 군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경위를 살펴본 바, 국립보건원에서 원수나 정수의 물이 아닌 철재통안의 물을 채취하여 수질검사 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 관리인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도시과장 / 김 연 수—

● 고흥읍 남계리 소재 잡종지 994평의 현 가축시장은 89.1 26일 고흥 축협에 117,300천원에 매각한 군유 잡종지로써 현 가축시장은 고흥읍 도심지에 위치하여 위생상, 교통상 소음 공해가 심할뿐만 아니라 가축시장 매각반대를 위한 군번영회장 김장술 외 598명이 제출된 진정서 내용은 현 일반시장의 협소로 하천변 개인 공터 등 사용으로 날로 불편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상 기고시된 고흥읍 호형리 소재 가축시장 예정지로 이설 상설시장화 해야 하는데 현가축 시장의 재산권을 축협으로 이관한다는 항간의 설이 사실이라면 군번영회와 군민 모두는 끝까지 반대 투쟁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토록 매각을 반대하는 부지를 기어히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후 환부조건 매각 협조 요청이 축협중앙회 지시가 있었음에도 계약서를 보완치 않고 방치한 책임소재와 환매조건이 이행되도록 촉구한 근거는 있는지 또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박 동 래 / 의원—

○ 매각 근거는 축산법이 87년 12월 4일자로 개정되어 가축시장을 축협에 이관토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 부득불 매각하게 되었으며 당시 축협의 형편으로 새로 가축시장을 개설할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89년 1월 30일까지 축협에서 매수하지 못한다면 축협중앙회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축협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특약조건을 붙여 매각한 것이며, 다만 군번영회와 주민다수의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에 89년말까지 가축시장을 이설 조치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군에서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을 이행토록 수차 축협과 절충하였지만 축협에서 부지선정 또는 시장 고시지역에 지주의 땅값 조정문제 등 부득불 기한내 이행이 어렵다는 축협측의 답변내용이 있었으니 계약을 불이행한데 대한 군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

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의 협조 공문이 있었으니 가축시장 부지문제는 우리지역 문제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내에서 타결한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의치 않아 늦은감이 있으나 '92. 8. 12일자로 축협중앙회에서 협조요청한 원가로 다시 환매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와 군과 축협, 고흥읍 및 관계기관과 번영회 언론계등의 뜻있는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충분한 협의하에 객관성 있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처리방법을 택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을 갖고 축협중앙회의 회신을 받은 즉시 추진토록 하겠음.

-재무과장 / 김 병 욱-

○ 분뇨처리시설을 전면 개수하고 93년 ~ 94년(2개년)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여 1일당 90㎘ 용량으로 증설 계획중이며, 고흥만 사업 진척에 따라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처리방식으로 강압증발식 또는 액상부식처리공법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대책으로는 고흥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당초에는 이설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처리장 증설계획이 고흥만 매립사업 완료 전인 93~94년으로 확정됨에 환경처, 농진공사, 고흥만사업소와 협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 위치에 증설코자 하며 새로운 공법으로 시설할 경우 고흥만 농업 용수가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유 종 식-

● 고흥만 간척사업에 따른 군 위생처리장을 이설할 계획이며 91년 4월 8일 전라남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의 진척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윤 식/의원-

● 근면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착실히 근무하여 정상적인 진급으로 우대 받는 인사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도 특권 계층에 야합하는자 도덕성이 결여된 출세주의에 물든 기회주의 공무원들의 주고 받는 인사 부정으로 수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공직자의 결백성을 보고 싶어하며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고위 공직자들의 양심과 용기입니다.

현 군수 부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치부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인사행정 불신을 최소화 시키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즉시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김 동 인/의원-

○ 공무원 모두가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부름꾼 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인사 행정이 과거에도 잘못했었고 지금도 별로 잘한것이 없지만 작년 1년동안 우리군 자체내에서 4급 1명, 과장 6명, 6급 계장이 26명, 하위직 81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승진되었고 정원이 대폭 늘어나 저희 나름대로 우리군 공무원 사기가 타시군에 비하여 많이 충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저 이하 관리하는 간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위직 공무원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 진작에 대한 시책을 많이 확보해서 펼쳐 나갈 것이며 인사를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또는 공직 내부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규정내지는 직원들의 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사하여 전체 직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고지 배치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소상히 알고 행정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능률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군 출신 타시군 근무 공무원을 우리군으로 전입 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연구 노력,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이 정 균-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과 지역별로 원만히 합의하였는가를 묻고 싶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한 곳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를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개발법 제43조에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하여야만 좀 더 적극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실정에 맞는 농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께서는 이를 상부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류 준 상 / 의원-

○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5회에 걸친 설명회를 갖고 지정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반대 지역은 지정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해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2조에 의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도시개발 공단개발에 필요할시는 군수 건의에 의해 관계법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필요할시 변경 조정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 고 근 석-

● 향후 우리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립해상공원 지정시기,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개발사업의 기대효과, 국립관리공단과 군수가 각각 해야할 사업과 관리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과 모순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고 입 준 / 의원-

○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일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81년 12월 23일 건설부 공고 제478호 공고되어 83년 12월 7일건설부공고 제401호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87년 6월 7일 건설부공고 제256호로 최종 변경 확정 봉래면, 도화면, 동일면 일부 총 면적 143,6㎢(육지 41.6㎢,, 해상 102 ㎢)로 유인도 9개, 무인도 15개가 편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공원 자원 내역으로는 도화면 지죽 산봉우리 금강기폭 203m와 기암 7개소(활개바위, 용바위, 산불기암, 병풍바위, 토석동굴, 꼭두미, 부채바위) 그리고 해수욕장 2개소(내발해수욕장, 나로도 신금해수욕장)가 집단시설 지구로 되어 있고, 수림으로 나로도 주변 송림, 향나무림, 후박나무단지, 가매도 동백림이 있으며 문화재로써 내발 충무사, 이순신장군 유적비, 왜가리 도래지가 있습니다.

공원개발 사업으로는 국가사업으로 국립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사업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본군 관내이기 때문에 군에서 용지매수 등 협조는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을 저희군에 위임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완도사무소에서 시행하게 되고

지금까지 사업실적으로는 90년에 집

9월 대법원 확정 판결후 쌍방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수명의로 해야함에도 9년간 방치해 두니까 신형식씨가 등기상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대구시 진천동 거주 조부환외 24명에게 매각한 관계로 군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후 양자 합의까지 하고도 군으로 이전등기 하지 않는 이유와 본 소송 관련 제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며 당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본 건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 건별 승패 사항과 패소에 따른 군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금도 이와 유사한 군유재산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군유재산 찾기 전담계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박 용 호 / 의원-

○ 오도간척지가 74. 1. 8 매립 면허자인 신형식 명의로 준공 인가되자 신형식은 준공인가 부과(정부투자 비율에 의해 토지를 분배한다)를 무시하고 74. 1. 30 본 간척지 173,485평 전 면적을 본인 명의로 토지대장을 등재하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서둘러 신형식 소유로 하였던 것을 본 군에서 알고 그 대응책으로 74. 4. 8 신형식으로 등재된 토지대장을 봉쇄 조치하고 준공인가서 부관을 토대로 정부 투자금액을 계산하여 토지 분배비율을 군 67.82%, 신형식 32.18%로 잠정 확정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배 지목별 지번별 내역을 첨부 신형식에게 통보 군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답 66,238평, 전 28,142평을 본군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잡종지 23,590평은 미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을때 74. 5. 27 신형식이 분배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오므로써 본간척지 전면적이 소송 계류중으로 묶여 토지 이동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이고 가압류, 처분에 따른 인지대 및 공탁 수수료등 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직무유기 관련 조치에 대하여는 감사기능을 통하여 조사 확인후 검토 처리할 것이며, 인사발령으로 당시 담당 공무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면서 후임자들과의 사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누락된것으로 보아지나 징계 시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울

러 검토 하겠으며,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하여는 92. 6월초 잡종지 매각 사건 동향이 접수되어 소직이 법무, 농지계장 그리고 박의원님과 함께 현지답사 6.16 광주 거주 신형식씨 댁을 방문 부당성을 예고 하였으나 계속 억지 주장 92. 6. 29 신형식을 군유재산 처분 횡령혐의로 광주 지방 검찰청에 고발 조치후 92. 7. 3 검찰에서 진술 조서 작성 7.9일 검찰 출두 관련 자료제시 7.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광주 지방법원에 제소후 소송 대리인으로 정웅태 변호사 선임 대응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은 등기 제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형식이 매각한 잡종지도 신형식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타인에게 전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 등기원인 무효 또는 잡종지 환수조치는 어렵다 할지라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승소가 확신되므로 부당이득금은 환수될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유사한 소유권과 관련 소송 승패사항은 원고 서충민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건은 본군이 1,2,3심 모두가 패소하여 이미 32,538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권화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본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광주고법에 항소를 제기 그동안 소송대리인을 통해 우리측 주장을 충분하게 변론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9월8일이라 선고를 지켜 보아야 하겠으며,

군유재산관리 전담계 신설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히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하고 다만 군유임야에 한해서만 산림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어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라서 별도 신설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라서 단기일내에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세외수입계에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군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임 영 호—

● '92년도 봄마무리 농지정리 5개지구(360*ha*)를 했다고 마무리된 후 경작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지정리 사업은 농업 근대화에 따른 노력절감과, 소득증대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 보는데 사업시기가 쫓겨 모내기철에 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 내용 (92. 7~9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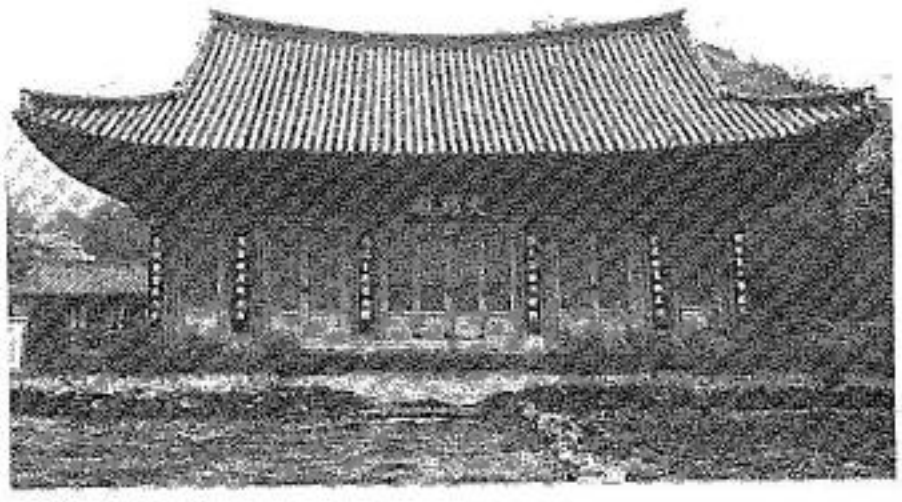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장	주 요 내 용	의 결
제11회임시회 (4건)	○ 고흥군 공원조례 (개정)	군 수	○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	원 안 가 결
	○ 고흥군이장정수 조례(개정)	군 수	○ 두원면 용산리 이장 정수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신월마을이 독립분리되어 고흥군 513개 마을에서 514개 마을이 되었음.	원 안 가 결
	○ 고흥군 읍면개발 자문위원조례(개정)	의 원	○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하되, 지역대표는 각리의 1인 이상으로 하여, 직능대표는 위원총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 위원수는 읍은 20인, 면은 15인 이내로 구성	자 구 수 정 원 안 가 결
	○ 고흥군 수도 급수 조례(개정)	군 수	○ 업종 조정과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특별회계 재정 적자에 대한 일부를 충당키 위하여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	원 안 가 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장	주 요 내 용	의 결
제12회임시회 (3 건)	○ 고흥군의회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 수등에 관한조례 (개정)	군 수	○ 고흥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원 안 가 결
	○ 고흥군별정직지 방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개 정)	군 수	○ 고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중 결핵 검사원과 나관리 요원은 삭제	원 안 가 결
	○ 고흥군사회교육 시설에대한군세 과세면제조례(개 정)	군 수	○ 고흥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 제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 관도 포함 면제	원 안 기 결

능 가 사

<점암면 성기리 369번지>

대 웅 전



능가사 대웅전
(지방유형문화재 제95호)
1992. 10.15 지정

능가사 대웅전은 신라 눌지왕 3년(420년)에 가도화상이 건설 임진왜란시 전소되어 조선 인조22년(1644년)에 벽천(정해)대사가 재건한 목조건물로써 정면오간 측면삼간(건평 57.6평)의 다포작팔작지붕으로 웅대하고 수려하며 평방이 이간일재로 연계된 보통목재 건축물에서 보기드문 장목으로 되어 있고 처마 곡선등에 첨곡의 면밀함은 우리나라 건축사상 중요 연구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범 종

능가사 범종은 1689년(숙종 24년)에 주조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높이 1m, 둘레 1.5m, 무게 1,500근(900kg)의 청동제 범종으로 능가사 내에 보존되어 있다.

한일합방후 일본헌병들이 고흥읍 헌병대로 옮겨 타종해 보았으나 소리가 나지 않아 영물이라 하여 다시 능가사에 돌려 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능가사 범종
(지방유형문화재 제69호)
1992. 9. 22지정

사 적 비



능가사 사적비
(지방유형문화재 제70호)
1978. 9. 22 지정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여년전의 능가사 연혁과 사적을 명기한 대형 화강석 비석으로써(높이 3m, 폭 1.3m) 1690년에 건립 하였으며 현재 능가사 경내에 보존되어 있다.

의 회 상 식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법 제36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도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의 회 상 식

의사진행 기본원칙

▣ 의사공개의 원칙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방청, 보도 및 회의록 공표를 자유로히 할 수 있음.(법 제57조)

○ 다만 의회의결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공개

▣ 의사 정족수의 원칙

○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 의사정족수 부족시 개회할 수 없음

○ 본 회의 의사정족수 재적의원1/3(본군 의사정족수 -6인)

※ 정족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은 정원수가 아니라 사망등궐원수를 제외한 현재의 수를 의미하여 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계산

▣ 다수결의 원칙

○ 회의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 의사 결정은 표결로 하며 표결 결과 소수자는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동회기중에 동일문제에 대해 재심할 수 없는 원칙(법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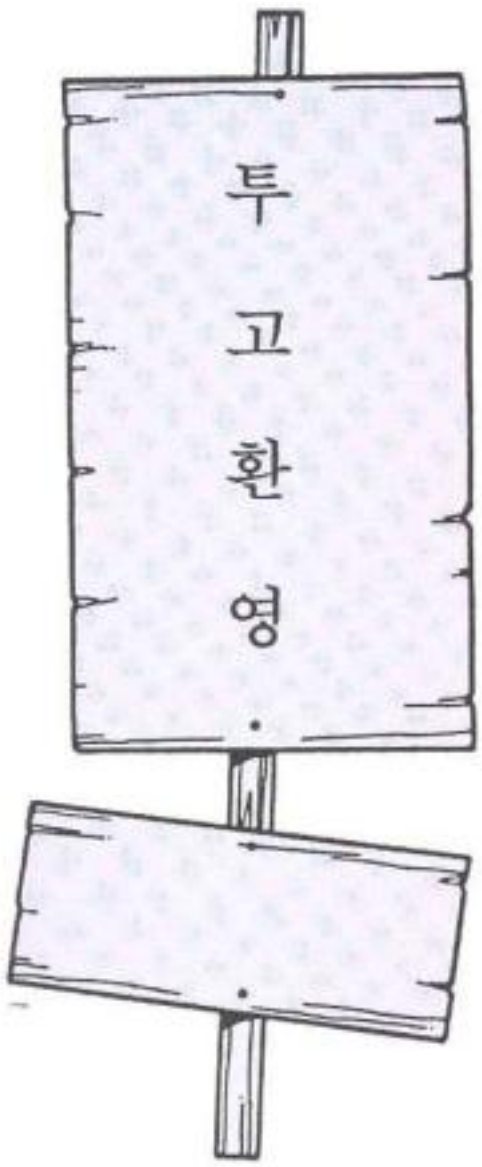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회의)가 끝남으로써 미결된 조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류 되어 다음 회기에서 논의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미처리 안건 폐지

의 원 명 단

읍 면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고 흥 읍	이 경 수	고흥읍 서문리 219-51	35-2789
도 양 읍	유 택 근	도양읍 봉암리 2242	842-0009
풍 양 면	박 동 래	풍양면 당두리 350	32-4715
도 덕 면	신 윤 식	도덕면 가야리 206	843-0765
금 산 면	김 남 규	금산면 대흥리 581	843-8789
도 화 면	김 동 인	도화면 당오리 522	33-0123
포 두 면	류 준 상	포두면 상대리 1	32-5883
봉 래 면	고 임 준	봉래면 신금리 1086-1	33-6541
동 일 면	최 형 문	동일면 봉영리 241-1	33-7074
점 암 면	박 채 주	점암면 화계리 63	33-9400
영 남 면	김 선 규	영남면 금사리 732-18	32-8852
과 역 면	송 복 조	과역면 과역리 439 -2	33-5001
남 양 면	박 용 호	남양면 대곡리 2137-4	33-5472
동 강 면	송 기 복	동강면 유둔리 198-1	33-2401
대 서 면	송 용 현	대서면 상남리 1107	33-3577
두 원 면	정 영 표	두원면 학곡리 55-6	35-4010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진 의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군민 여러분의 진솔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의정과 군정에 바라는 사항

○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

○ 기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논단, 칼럼, 제언등

◉ 분　　량 : 200자 원고지 5~8매

◉ 접수기간 : 수시

◉ 보 낼 곳 : 고흥군 의회사무과

(☎ 35- 1228)

방 청 안 내

고흥군 의회에서는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방청권은 의회사무과(☎ 35-1228 군청 본관 4층)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議